# 광주만의 돌봄서비스 4월 1일 시작한다

## 질병·사고·장애 등 누구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 가능
## 경제적 형편 아닌 돌봄 필요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
## 기존돌봄 우선…틈새는 광주+돌봄, 위기사항은 긴급돌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광주 만의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 수립·실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102억 원(시비 79억 원·구비 23억 원)을 투입,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한다.

기존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위기 상황 시 300만 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다만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 원이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5개구 단일창구인 돌봄콜을 이용하면 된다. 돌봄콜 번호는 곁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로 정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일 대 일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평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민선 8기 복지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1월까지 5개 자치구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마쳤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민간전문기관은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공모·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공 인력의 사전교육도 의무화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광주경찰청은 13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3년간 중단됐던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사진=광주경찰청 제공)

## 광주경찰 안보자문협의회 3년 만에 정기회의 개최

광주경찰청은 13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3년간 중단됐던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김영근 안보자문협의회 회장·회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문·협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분야 신규회원 위촉,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20명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임 광주경찰청장은 "협의회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지역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경찰도 탈북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와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광양시 황길동 월드마린센터에서 동부권 기업인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도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 전남도, 동부권 기업 경쟁력 강화…최신 정보 공유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4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2023년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을 열어 동부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최신 경제·경영 정보를 공유했다.

경제마당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포스코광양제철소,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에스케이이엔에스㈜, OCI㈜, 광양항운㈜ 등 지역 기업인, 광양·순천 상공회의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남지회, 여수 경영인협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인플레이션 이후의 세계' 주제 강의를 통해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참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관련 산업 등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석 기업인들도 최신 경제 동향과 경영정보 등을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 남광주새마을금고 제25차 정기 총회

### 한동훈 이사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고 되도록 노력"

광주 남광주새마을금고(이사장 한동훈)는 최근 남초등학교 강당에서 1,360명의 회원과 임직원들이 모여 제25차 정기총회를 했다.

회의 진행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서 했으며 제1부에서는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가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상은 안규종 회원이 받았고 이사장상으로 우수회원상은 구순자, 노정은, 진낙섭, 장용근, 이은희, 김춘희, 방미영, 김백수, 김건진, 문명자, 김희근, 장덕례, 장정수, 김상섭, 박상이 등 15명이, 특별상은 신동주, 김은화, 이옥남, 진미정, 장소녀, 김영임, 윤명숙, 오오순, 이귀례, 장재원, 범송, 김정남, 윤양남, 정덕임, 윤명순 등 15명이 받았으며 상장과 상품은 한동훈 이사장이 전달했다.

제2부에서는 이사장 인사 말씀, 감사보고, 회의록 서명인 지정이 있었으며 부의 안건 상정이 있었다.

인사말에서 한동훈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금고에서 서면결의로 하던 정기총회를 코로나바이러스가 완화됨에 따라 남초등학교 대강당에서 1,3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총회를 하게 되었다"며 "남광주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에게 저축심을 기르고, 저축한 돈의 관리를 잘하여 생긴 이익을 지역 사회와 회원들에게 환원하여 주는 모범이 된 금고로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금융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자산 3,057억 원, 당기순이익 17억 3천 5백만 원을 달성했으며 출자배당 6% 이용 고객당 2%로 총 8%를 지급 배당하게 되었다. 이는 제6대 남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회원 여러분께 약속한 자산 3,000억 원의 목표를 돌파했으며 역사 이래 최고의 자산과 경영성과 달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임직원은 회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금고, 금융환경변화에 경쟁력 있는 금고가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남광주새마을금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 광주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개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4일 구청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시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교육청, 광산경찰서, 광산구가족센터,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기관단체별 사업 정보 공유, 외국인주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호남권 최초로 전담 부서인 외국인주민과 신설 후 첫 소통의 자리로 마련한 '외국인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이주민 엄마'를 위한 다국어 학교 '알림장',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교육, '다문화가정자녀 엄마나라 언어교육' 등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임형택 기자